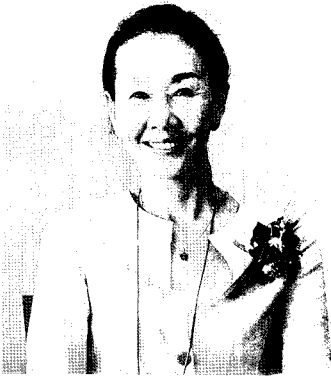


생활발명운동 확산과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으로 만나 명함을 내밀면서 자기소개를 하면 상대방은 대부분 “여성, 발명?”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면 여성과 발명은 어찌 그리 잘 어울리는 조합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 한국여성발명협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 협회를 통해 여성발명인들과 기업인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성 발명의 중심축으로서의 한국여성발명협회

우리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올해로 16돌을 맞았습니다. 지난 1993년 뜻있는 몇몇의 여성발명가들이 방송 출연을 계기로 발명에 대한 서로의 관심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해 ‘발명’을 통해 여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여성발명가협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6년에 그 이름을 현재와 같은 “한국여성발명협회”로 변경했고 1999년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현재 약 4천5백 명의 회원을 가진 발명계에서 여성 파워를 뽐내는 대표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특허청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성 발명 문화 확산, 발명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 여성발명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 첫째,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발명특허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발명품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여성발명품박람회와 세계여성발명대회를 개최, 마케팅과 홍보에 취약한 여성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변리 상담 및 자문서비스나 지식재산권 설명회, 여성발명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성들의 기발한 생활발명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산업재산권을 획득해 사업화, 거래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우리 사회에 여성 중심의 발명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발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여성발명가들의 성공사례를 발굴, 소개함으로써 우수 발명품을 홍보하고 발명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의욕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를 접수, 심사하여 시상하는 여성발명경진대회를 열어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으며, 우수 여성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촉진하고 홍보합니다.

여성장애인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펼쳐 신체적 불편함

을 창의력으로 극복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년 10월에는 발명가족페스티벌을 통해 발명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 속 발명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월간지 '발명하는 사람들'을 발간해서 발명에 관심 있는 여성들뿐 아니라 기업, 대학, 정부, 국회, 공공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여성 발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수한 발명인을 육성,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지식재산권 설명회와 여성발명창의교실을 열어 자녀들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 발명에 관심이 있는 여성 및 자녀 지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부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발명지도사 과정을 운영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에서 창의력 및 발명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조기 발명교육의 실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대생발명캠프를 개최해 발명 체험 실습과 심화된 창의성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미래 여성 발명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왜 여성발명인가?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던지는 또 하나의 의문은 왜 '여성발명' 이냐는 것입니다.

여성발명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생활 속의 발명 문화가 조성되려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발명은 곧 국력입니다. '국민이 얼마나 창의적이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자녀 교육은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몫이었고 현대 사회에서도 어머니의 이런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려면 창의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스스로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창의적으로 변화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성발명'의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에 '여성발명협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관찰력, 유연성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를 발견하고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생각해보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발명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이 특징입니다. 언뜻 소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성발명이 갖는 가장 큰 힘입니다. 또 이후의 파급 효과도 크고 개량, 활용되는 방식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성발명품들이 제품으로 출시되면 시장에서 금방 반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여성 발명품들은 산업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틈새시장을 공략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창의성의 발휘로 자신만의 독특한 발명품을 만들고 여성 기업가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용유 정제기, 스팀청소기,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분리형 운동화 등 우수한 여성발명품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성의 잠재성을 깨워서 창의성의 발현을 돕고 산업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 한국여성발명협회가 갖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제 침체가 길어지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창의력과 여성 인력의 활용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수한 여성의 잠재력을 적극 개발,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여성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활용한 발명으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여성들을 지식재산권을 통해 여성경제인으로 배출, 활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

합니다.

저는 발명 분야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발명이 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해 여성의 창의력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되고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성공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성공적 개최

한국여성발명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된 여성발명 진흥 사업의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2008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일본과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허강국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여성 발명의 힘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희 협회가 발명품박람회, 재식재산권설명회 등 본격적인 여성발명진흥사업을 펼치기 시작한 '01년 여성의 특허 출원 등록 건수가 4,032건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08년에는 7,772건으로 92.8%, 전체 출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01년 3.1%에서 '08년 4.8%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국내에서의 여성생활발명운동은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여성 중심의 생활발명운동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협회가 지금까지 여성발명인들과 기업인들의 발전을 위해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08년 5월에 특허청 주관, 한국여성발명협회 주최로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Exposition : KIWIE)와 대한민국 세계 여성발명포럼(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Forum)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제2회 대회도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세계 35개국에서 해외 여성발명기업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35개국에서 35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작년보다 참가 규모가 증가하여 세계 많은 여성발명 기업인들의 호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로 개최된 이 대회는 세계여성발명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발명품을 겨루고 서로의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한 화합의 장이자 흥겨운 축제였습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KIWIE대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세계 여성발명기업인들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 여성발명기업인들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여성발명품의 홍보 및 전시를 통해 실질적인 판로개척 및 비즈니스 매칭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한국여성발명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Forum)은 지식재산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지식재산발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포럼은 세계 여성발명인들과 기업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 또는 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들을 공유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나라별 격차를 줄이고 발명의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여성발명기업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포럼과 더불어 올해 처음 세계여성발명기업인워크숍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화여대리더십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인 IP 파노라마(IP Panorama)과 한국 여성발명협회의 오래 여성발명교육 노하우를 접목해 실제 비즈니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중심의 사례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해 세계여성발명기업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발명의 달에 열린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는 명실 공히 전시, 경연, 학술,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어우러진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발명축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설립

WIN4B(Women Inventor's Network for Business : 사업화를 위한 여성발명인의 네트워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대한민국여성발명포럼('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Forum')을 통한 가장 의미 있는 결과는 참가국의 동의와 서명을 통해 서울에 사무국을 두는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여성발명포럼은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지식재산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한국여성발명협회 주최로 지난 2008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었고, 올해 2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08년 포럼에서 각국 대표단은 세계여성발명기업인들이 정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으며 2008년 1차로 18개국 대표단이 합의해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금년 5월 제1차 총회와 신규 회원 조인식이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새로 8개국에서 합류하여 현재 세계여성발명·기업인(WWIEA)의 회원국은 총 23개국의 28단체가 가입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세계여성발명기업협회의 회원 자격은 각국의 발명 및 경제관련 단체, 발명특허를 가진 여성 기업이며 협회가 안정되고 원활해지기 전까지 사무국은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는 세계 여성발명인과 기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성장의 시너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는 21세기의 지식재산경제시



대에서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거나 발명 잠재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성장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지식재산약소국)과 선진국(지식재산강대국) 간의 지식재산권 격차로 인해 저개발국가의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국제적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여성발명기업인들과 중소기업인들만을 위한 정책의 부족과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여성발명기업인들과 발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인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우수 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해 지식재산권 관련 나라별 격차를 줄이고 저개발 국가의 여성발명기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동발전과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성 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발명기업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육성과 차별화된 지원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공동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 비율이 커지고 있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 지식재산권을 갖고 경제력을 얻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현재는 지식재산권 시대입니다. 국가 간 경쟁이 첨단 기술의 개발과 지식재산권의 선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의 원천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섬세한 감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낸 생활발명의 아이디어는 또 다른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경제력을 갖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국내의 여성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여성들이 발명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 경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가 세계 여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명특허 2009. 8